

국내 대학의 영화 및 영화 관련학과 교과과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

이찬복^{1*}

¹상명대학교 예술대학

A Study on Effective Adjustment of the Curriculum in Film and Film Related Major in Korean Colleges

Chanbok Lee^{1*}

¹College of Art, Sangmyung University

요약 국내 대학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가 개설된 지는 50년이 되었지만 초창기의 10여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대거 신설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영화가 발전하는 것을 좇아서 학교내의 커리큘럼을 수정해왔지만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빠른 산업계를 학교가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영화계에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제작 양상이 변했고 때맞추어 대기업의 자본과 통신과의 결합, 멀티플렉스를 이용한 와이드 릴리즈 개봉 방식 등의 영화 산업계 전반에 닥친 혁명적 변화로 학교에서 양산한 영화 전문 인력은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영화 제작 현장과 대학 간의 괴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고 현장은 별다른 검증 없이 투입된 신규 인력을 재교육 시켜야만 했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 선도 격인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90년대 이후에 신설된 전국의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들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전국에 산재한 영상 관련학과는 교과과정에서 만드는 차별성이 없다. 해외 대학의 경우 영화 연출이나 촬영 감독 등 특정 직업군의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다양한 영화 직종의 구체적인 소개와 실습을 통하여 필름메이커로 성장하도록 교과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이 곧바로 영화 전공과목에 접하기 보다는 먼저 인문학과 교양 과목 이수하도록 하여 창작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 영화이론, 영화 및 영상 제작, 영화 (매체) 연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부분의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전공 세부 과정은 각급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부 전공 과정을 개발하여야 영상 관련 대학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영화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화 전공 교과목을 나열하여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는 과정은 통합하여 수를 줄이고 구색 맞추기 정도의 프로덕션 디자인, 사운드, 편집, 특수 영상, 마케팅과 홍보, 컴퓨터 그래픽 등의 분야는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영화 학교에서 제한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경력 유경험자의 교수진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진 다채롭고 창의적인 영화 인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efore 1990's, Korea had only few colleges that had film and film related majors. As Korean film industry started its marvelous improvement in both commercial and artistic phase, many colleges were interested in this new academic field. They hurriedly to launch this new and profitable major; as a result, Korea now has more than hundred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has film related majors.

Each college enumerates numbers of academic courses that may look reasonable; they have almost every course a fine film school should provide such as film theory, production, and performance in film. Lots of film schools offer lots of film courses; and they look alike. One unique thing in film major is its vast sub fields and categories. After you decide to study film, you have to select what specific field in film you want to study. Studying film theory and film production can be as different as majoring physics and physical education. The problem Korean colleges are dealing with is that there are too much film schools, and moreover those colleges have similar curriculums that just look like a department store that sells everything.

One suggestion is specializing its curriculum in which the school can take advantages using their special condition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is one of United States well known private film schools, but many people remember this school as a specialized film school in experimental film. San Francisco where this school is located has had many liberal and experimental artists as the city has been supporting and offering them an environment they can concentrate their work. Naturally, the school has world famous faculty members in experimental film, and students who want to study and make experimental film come to this school from all over the world because they know this school would be the best to study experimental film. There are many film schools in metro Los Angeles area; since its location near Hollywood, no wonder these schools concentrate on film producing and film production. They take advantag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to hire film industry professional and to focus on commercial feature film productions.

What we can do now to adjust the curriculum in film and film related major in Korean colleges is to adapt new standards in this changed film industry. One school can emphasize digital production while another school focuses on digital intermediate process. But if one school tries to both fields or all fields of film major just like we have done so far, the school could not take care of all the equipment and the faculty that the fields would need. Korean film schools should decide the field in film major and concentrate what they select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can be and should be applied in Korean film schools.

Key Words : Film major, Curriculum, Film studies, Filmmaking, Specialized film school

이 논문은 2007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G00047).

*교신저자 : 이찬복 (chanlee@hanmail.net)

접수일 09년 06월 11일

수정일 (1차 09년 09월 11일, 2차 09년 10월 01일)

게재확정일 09년 11월 12일

1. 서론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1990년대 이후로 국내 대학의 영화 및 영화 관련학과 신설은 마치 붓물 터진 듯하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청주대, 경성대, 단국대 등이 ‘연극영화과’ 등과 같은 전공 명칭으로 영화를 가르치고 있었고 2년제 대학인 서울 예술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영화학과’가 있는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중흥과 함께 전국의 대학들도 이 새롭고 유망한 전공에 관심을 나타내며 하나, 둘씩 영화 관련 전공을 신설하기 시작하더니 2008년 말 현재 전국에는 100여개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영화 및 영화 관련 전공을 개설해 놓고 있는 현실이다. 불과 10여년 만에 영상 관련학과는 수십 배가 넘게 개설된 것이다.[2]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대학에서 영화 및 영화 관련학과를 개설해 놓았던 80년대와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놓고 있는 현재 각 대학들이 그동안 어떠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변화시켰는지 궁금해진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대학의 담장 너머 영화 산업계와 대중 문화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영화라는 젊은 매체를 각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독립 전공으로 채택한 것은 그리 오래된 풍경이 아니다. 독일의 우파(UFA)나 구소련의 모스크바 영화학교, 미국의 남가주 대학 등을 고참격인 영화학교로 꼽을 수 있다지만 이들 모두 수십 년 밖에 안 된 비교적 새로운 전공의 학교인 것이다. 국내에 영화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연극영화과로 출발한 중앙대학교와 1960년 영화과를 창설한 한양대학교, 역시 같은 해인 1960년 연극학과로 출발했다가 1962년 당시 문교부의 ‘유사학과 통폐합 정책’에 의해 연극영화과로 변경한 동국대학교 쯤 이라고 볼 수 있다. 동국대는 이후에 영상미디어 대학 내에 영화영상학과라는 전공으로 예술대학의 연극학부와 분리하여 영상 교육을 확대했고 한양대는 1968년 연극영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극과 영화를 통합하여 교육하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6년 2학기에 예술학부를 신설하면서 영화와 연극을 분리하여 각각 영화학 전공과 연극학 전공으로 나누었다.[4] 중앙대 역시 1989년도에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영화교육을 위하여’ 연극과 영화를 나누어 교육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다른 대학의 연극영화과가 분리, 혹은 분리하여 개설하는 데에 모델 역할을 했다. 국내 영화 및 영화 관련학과의 원조 격인 세 학교 이후에 영화 영상 및 유사 학과를 개설한 다른 대학들은 이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학교가 나아갈 교과 로드맵과

세부 전공 과정을 확립하는 데에 일정 부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후발 대학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색깔이나 방향을 정했다기 보다는 선도학교들이 정해 놓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별로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서로 비슷비슷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백화점 식의 교육과정처럼 보이는 것이다.

국내 영화학과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의 교육과정은 아마도 일본과 서구 영화 선진국 대학의 영화 전공 교과과정을 참고했을 것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영화 산업계는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서 영화 산업이 필요로 하고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원했다. 이렇게 짜인 영화 교과과정은 한동안은 효력을 보였으나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특징이기도 한 빠른 속도의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잦은 포맷 및 기술적 세부 내용의 변화로 대학의 교육과정이 영화 산업계와 같은 속도로 따라가기에는 무리였다. 여기에서 고질적인 교육과 현장간의 괴리감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배운 내용과 현장은 같지 않거나, 배운 내용은 이제 낡은이론, 혹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 현장에서는 신입 스태프들을 또 다시 교육시켜야 했던 것이다. 영화학과와 영화 관련학과들은 교육 당시에 유행하고 인기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기조작 전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바뀌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창작 마인드와 창의력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확립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는 교육에서 고기를 낚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실용적이고 영구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1]

반면에 산업계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뿐더러 오히려 영화와 영상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미국 필름 스쿨들의 교육과정 쇄신과 변혁은 한국의 대학들이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할 점들이 많다. 국제적인 작가와 필름메이커들을 양성하고 있는 뉴욕 대학교(NYU; New York University)와 캘리포니아 주의 남가주 대학교는(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고전적인 영화학과의 교육과정 틀을 과감히 버리고 영화학과(Film Studies) 영화 제작을(Filmmaking)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학 내에도 장르와 작가, 사조, 감상과 비평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필드의 영화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영화 제작 내에는 시나리오, 촬영, 편집, 연출, 미술, 프로듀싱, 사운드 등의 세부 전공을 나누었다.[17] 이들은 1990년대의 전형적인 아날로그 사업이었던 영화제작분야에 디지털이 도입되자 100여 년간 유지시켜왔던 영화 제작 교육 방식을 과감히 수정 보완하였다. 컬러리스트의

경험과 감에 100% 의존한 색보정 작업과 손으로 한 컷씩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는 아날로그 후반 작업에 낯설고 비싼 컴퓨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투입시켰고 백발이 성성한 영화학과 교수들 대신에 디지털 필름메이킹 과정을 몸으로 익힌 현장 경력만의 젊은 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겼다. 아날로그 시대에 시작한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가 디지털 장비로 제작한 속편으로 탈것거림 없이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학과 개설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대한민국의 영화학과와 영상 관련학과 교과과정은 이제 21세기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영화는 10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희와 오락에서 예술과 소통의 장르로 성장하고 확대되어왔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는 무성에서 유성, 흑백에서 칼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영상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인 대학의 영화학과에서도 현장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거리가감 있는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으로 21세기의 영상인재를 지도할 것이 아니라 첨단 기법과 새로운 영상의 역할에 적응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과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영화 및 영상관련 교육과정으로 한다. 대학의 크기 면에서 본다면 규모가 큰 종합 대학과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세워진 단과 대학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또 대학의 개설 주체가 정부주관 혹은 개인인가에 따라 국, 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은 또, 각 대학이 표방하는 장르나 선호하는 경향 등에 따라 상업 영화 중심 대학, 장르 영화 중심 대학, 독립 영화 중심 대학, 영화 이론 및 영화학 중심 대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대학은 대체로 이처럼 다양하게 분류되는 영화 하위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가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영화 교과과정의 범위 안에는 영화학, 영화 제작, 영화 일반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부 과정으로 국한한다. 외국의 경우 특수 분장 (Special Makeup) 이나 특수 효과 (Special Effect) 처럼 영화 내의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대학과 비교할 때 학술적인 교과 비교가 어려우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같은 이유로 직업 전문학교 성격을 띠는 연기 전문대학과 컴퓨터 그래픽 전문 과정 대학, 스텝 양성 학교들의 교과 과정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다.[3]

대상 전공은 영화학과, 연극영화학과 내의 영화 세부 전공, 영화 예술학과, 영상예술학과, 다중매체학과 (멀티미디어 학과), 방송영화학과 등으로 한다. 언급한 전공 명칭 외에도 영상문화학과 (강원대), 영상미디어 학과 (부산외국어 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 전공 (대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 학과(한라대학교) 등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영상 관련학과의 학과 명칭 종류는 수십 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바뀐다. 각 대학의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혹은 보다 많은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 방안으로 영상과 정보통신, 인문학 등을 결합시키는 경향에 부응하느라 이런 저런 이름으로 변신을 거듭하여 개설된 학과 명칭을 파악하거나 바뀐 이름을 모두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는 따라서 개설된 전공의 명칭과 전공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영화와 영상 관련 과목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대학을 그 대상으로 정해야 했다. 국내 대학들의 교과과정은 미국이나 유럽 등 영화 선진국과는 다르게 제작, 이론, 연기 등으로만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하위 분야인 장르나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의 세부 제작 전공과 이론의 사조 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론에 가까운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는 정도이다.[3]

1.3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장 영상 관련 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 고찰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영화를 전공하려 대학에 입학한 학부생들이 택해야 할 전공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집중한다. 국내 대학 중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경성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의 요람과 홈페이지에 오른 교과과정을 참고하였다. [7,9,11] 이들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중앙대, 동국대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의 경우였고 청주대와 경성대 역시 오래된 대학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 대학으로써의 대표성과 상명대는 비교적 신생 개설 대학의 대표성을 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영화 전공 내에는 여러 개의 하부 세부 전공이 존재하는데 시나리오, 연출, 촬영, 기획, 사운드, 조명, 편집, 미술 등이다. 각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영화 전공 학생이라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전공 선택 과목들은 대개 영화사나 영상 미학 등의 과목과 각 세부 전공의 입문이나 개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 선택 과목에서 지정한 수강 가능 학년이 굳이 정해져 있는지, 선수 과목의 여부, 그리고 특정한 세부 전공을 위해 권장하는 전공 선택과목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2.2장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 영상 관련 학과의 전공 과목 분류에서는 미국의 이론 전공과목과 제작 실기, 연

기 실기 과목이 포함하는 과목들과 연계 과목들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특히 장르와 사조, 영화사, 미학, 기호학, 미디어 학 등을 아우르는 이론 전공과목들의 현황과 학년별로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고 제작 실기 과목에 있어서는 제작 전공 내의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또 졸업 사정시 이론 전공 학생들의 논문이나 연구에 해당하는 제작 전공 학생들의 졸업 작품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연기 실기 과목과 제작 전공과목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산학 연계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알아볼 것이다. 많은 숫자의 대학에서 영화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 대학 평가에서 오랫동안의 노하우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지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우수 영화 전공 대학의 상위권에 랭크된 바 있는 대학들과 미국 내 대학 가이드로 인지도가 있는 Peterson's 출판사의 “시각 예술 전공 대학 가이드” 2009년 판과 동 출판사의 “4년제 대학 가이드” 2009년 판에서 조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였다.[14,15]

2.3장 영상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에서는 2.1, 2.2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영화 전공 대학들이 벤치마킹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교과목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영화학과, 혹은 영화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각 대학들이 제작, 이론, 연기 등으로 나눈 하부 세부 전공을 제작 크리에이티브, 제작 스템, 영화 이론, 영화 장르, 연기 등으로 나누어 각 세부 전공마다 구별된 전공 진로 방향 (career path)을 마련할 것이다. 영화 전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세부 전공과 관련도가 높지 않거나 활용할 수 없는 과목을 수강하여야만 했던 모순을 없애고 자신이 정한 세부 전공의 어드밴스드 과정의 수강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이나 인디펜던트 프로젝트, 산학 연계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마친 학생은 각 분야의 현장에서 영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본론

2.1 영상 관련 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 고찰

국내의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전공과 관련 없이 대체로 140학점 안팎을 이수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중 절반쯤인 70여개 학점은 각 대학에서 특색 있게 구비한 중점 및 일반교양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70여개 학점을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점 및 일반교양 교과에도 “영화의 이해와 감상” 혹은 “대중문화와 영화” 등의 교과목처럼 영화를 주요 텍스트로 사용하고 해당 강사도 영화 전공자들인 교과목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공 교과로 구분되어진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 영상 관련학과는 전공 내에 대체로 이론과 제작, 연기 등으로 분류하는 세부 전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혹은 영상이라는 이름의 전공 명칭이 포함할 수 있는 세부 전공의 폭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일 것이다. 이론 전공 내에도 영화사, 영화 비평, 장르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제작 전공 내에도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등 영화를 단지 하나의 전공으로 분류하기에는 교과 과정이나 학습 내용이 하부 영역에 따라 지나치게 상이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와 동국대, 경성대의 전공 선택 과목 및 전공 필수 과목을 비교해 보았다.

【표 1】 국내 영화전공 대학 중 세부 전공을 이론, 제작으로 분류한 대학의 교과과정

대학	전공기초 (필수)	제작	이론
중앙대 영화전공	영화개론	영상표현	영화분석(1)
	영화사(1)	시나리오 작법	영화분석(2)
	디지털영상실습(1)	촬영기초(1)	영화연출론
	영화이론(1)	편집	영화사(2)
	영화제작실습(1)	디지털영상실습(2)	한국영화사
		시나리오 창작(1)	기록영화세미나
		영화음향	영화기획제작론
		촬영기초(2)	영화와 사회(1)
		촬영세미나	영상매체론
		프로덕션디자인	영화스타일 분석
		시나리오 창작(2)	한국영화연구
		영상매체실습	실험영화론
		영화제작실습(2)	영화연기분석
		TV제작실습	영화와 사회(2)
		영화제작실습(3)	영화이론(2)
		장편시나리오	영화비평
		현장실습(1)	영화연기연출론
	영화제작실습(4)	작가연구	
	현장실습(2)		
	영화제작실습(4)		
	현장실습(2)		
전공기초 5과목, 제작 21과목, 이론 18과목: 총			

동국대 영화 영상 학과	44과목		
		비디오제작기초	영화영상미학
		필름제작기초	세계영화사
		단편시나리오 실기	한국영화사
		촬영조명실기1	영화연출론
		사운드 실기1	제작기획론
		프로덕션디자인 실기	서구영화분석
		편집실기1	영상산업론
		시각효과기초실기	한국영화분석
		영화제작실기1	
		편집실기2	
		시각효과워크샵	
		졸업영화실기1	
		영화제작실기2	
		인턴실기	
	촬영조명실기2		
	사운드 실기2		
	장편시나리오실기		
	졸업영화실기2		
제작 18과목, 이론 8과목: 총 26과목			
경성대 영화 전공	영화개론	디지털영상제작	서양영화사1
	영화분석	영화연출실습	서양영화사2
	기초워크샵 1	시나리오 작법	동양영화론
	기초워크샵 2	촬영 실습1	한국영화사
		디지털영상편집	기록영화론
		영화편집	영화비평론
		영화워크샵1	영화감독론1
		영화워크샵2	영화감독론2
		촬영실습2	영화기획론
		촬영실습3	영화미학
		음향효과제작실습	실험영화론
	영화워크샵3	현대영화분석	
전공기초 4과목, 제작 12과목, 이론 12과목: 총 28과목			

영화 영상 관련전공 개설 대학중 상명대학교와 청주대학교는 나머지 학교들과 구분되는데 그것은 이 두 대학이 전공 내에 연기 과정을 따로 구별해서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트랙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학생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연기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입학 후에는 자신의 세부 전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기 전공과목을 개설해 놓은 것이다.[8,10] 이렇게 연기를 별도로 나누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연기를 전공한 교수가 아예 없거나 연기 전공 교과도 전혀 개설해

놓지 않아 배우를 희망하고 연기를 배우고자 입학한 학생들은 원치 않는 영화 이론이나 제작 과목들을 수강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연기 과목의 개설은 굳이 연기를 전공하여 배우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화 연출이나 다른 제작 분야 스템을 희망하는 학생일지라도 그들이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자주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배우들의 연기 전공 분야를 배우는 것은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연기 지도, 연출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연기 전공 학생들이 영화 제작과 이론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다수의 교수들은 권장하고 있다.

[표 2] 국내 영화전공 대학 중 세부 전공을 이론, 제작, 연기로 분류한 대학의 교과과정

청주대			
전공필수	제작	이론	연기
영화개론	영화기술	영화개론	기 연기술
영화제작기초실습2	사진	세계영화사	무술연기술
영화제작1	영화 편집	영화감상	영화연기1
영화제작방법연구1	영상조명	시나리오작법론	영화연기2
영화제작2	영화제작기초실습1	한국영화사	연기워크샵
영화제작방법연구2	촬영1	영화연출론	
영화제작3	디지털 편집	영화기획	
영화제작방법연구3	시나리오작법실습	영화예술론	
영화제작4	촬영2	광고영화	
영화제작방법연구4	디지털애니메이션	실험영화론	
	영상디자인	영화작가연구	
	특수촬영	영화비평	
	코디네이션	기록영화	
	특수조명		
상명대			
한국영화사	영화기술	영상산업론	보이스액팅
영화이론의 이해	디지털 영상기초	사진	움직임
영화제작1	스토리텔링	세계영화사 1	매체연기입문
작품분석	영화연출	세계영화사 2	매체연기기초
영화제작2	디지털 영상실습	영화 장르연구	매체연기실습2

	시나리오연 습	영화 감독연 구	연기워크샵 1
	영화촬영1	한국영화쟁 접연구	연기워크샵 2
	프로덕션 디 자인	영화문화연 구	
	동영상 저널리즘	영화기획론	
	영화촬영2	영화세미나	
	영화편집		
	졸업영화제 작1		
	사운드 디자인		
	인턴십		
	졸업영화제 작2		

2.2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 영상 관련 학과의 전공과목 분류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영상 관련학과의 전공과목을 분류하고 비교해보는 일은 쉽지 않다. 이유는 두 나라가 영상 관련 전공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분교 (UCB;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전통적인 영화학과로 이론을 중심으로 다룬다.[16] 반면에 멀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교 (AAU; Academy of Art University)는 실기에 집중적인 투자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통한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산학 연계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12] 국내 대학은 영화전공 아래에 이론과 제작으로 분류하거나 이론, 제작, 연기로 더 세분화하여 많은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렵다.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려면 현재 이수 학점을 제한하는 것을 풀어서 보다 많은 숫자의 전공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세부 전공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트랙별 지도를 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학의 뿌리 깊은 문제점인 교수대 학생 비율을 떠올리면 이러한 기대가 단시간에 충족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학은 영화 이론이나 비평을 인문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학위도 일반 학사 학위인 B.A. (Bachelor of Art) 나 B.S. (Bachelor of Science)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와 영화제작을 전공하고 졸업논문 대신에 졸업 작품으로 졸업사정을 통과하여 예술학 학사 (B.F.A.; Bachelor of Fine Art)를 주는 식으로 이론과 실기 전공 학생의 학위를 구분한다.

1990년대 이후로 급격히 늘어난 국내의 영화 및 관련 전공 대학들은 이제라도 각 학교의 지역적인 상황과 학생 수급 능력 등의 여건들을 검토한 뒤 제작과 이론, 연기 등의 분야 중 집중해야 하는 분야를 정한다면 특성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규모나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채 제작 관련 과목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질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영상 관련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들은 대체로 3, 4 학년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근래에는 해외 연수나 현장 경험을 위한 휴학, 혹은 학비 마련을 위한 학생들의 잦은 휴복학과 남학생들의 군복무를 위한 휴학 때문에 사실상 각 교과목의 수강은 교육과정에 정한 것처럼 학년별 순서에 잘 따라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이러한 학년 개념은 더욱 희미해서 pre-requisite이라고 불리는 선수과목이 적용되는 과목이 아니라면 대체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학년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수강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영상 관련학과의 전공과목 분류는 학년의 구분 없이 각 과목의 세부 트랙에 따라 구별한다.

국내 대학의 영화 제작 세부 과정은 대체로 연출, 촬영, 편집, 시나리오, 프로덕션 디자인, 사운드 디자인, 조명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이렇게 다양한 구색을 갖춘 영화 학부과정에서 특히 ‘연출’ 부분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 실습’ 혹은 ‘영화 워크샵’, ‘영화 제작 실기’라고 불리는 영화 만들기 교과과정은 각 학교마다 학년이나 레벨에 따라 4단계 혹은 2단계로 반복하여 개설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업 시수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그들이 쓴 시나리오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는 제작 실습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는 것처럼 1인 1작품을 요구하는 대학에서 연출을 맡은 학생이 나머지 역할을 동료 연출 학생들과 품앗이 형태로 협조를 받거나 편집이나 사운드 믹싱같은 후반 작업에 속하는 작업은 연출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출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별도로 영화연출론, 영화 연출 실습, 영화 연출 등의 연출 과목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결국 연출이 아닌 제작 스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미술이나 사운드와 같이 근래에 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의 교과목의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영화 대학들 중에는 우리의 전공 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선수과목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찾

아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는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교양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영화학과의 학력평가 시험을 통과하거나 선수과목 영화학 개론 (CINE200; Introduction to Cinema Studies)과 영화제작 개론 (CINE 202; Introduction to Filmmaking)을 이수하여야 비로소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인 할리우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 엔젤레스 분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의 경우 좀 더 엄격하게 영화 전공 학생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는 처음 2년간의 교양과목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3학년 과정에서부터 영화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영화학과를 자신의 전공으로 정한 학생들은 전공 없이 학부 2년 동안의 교양과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3] 이는 입학한 후 곧바로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영화를 찍어올 것을 요구하는 일부 대학과는 무척 대조적인 것인데 미국 대학들이 다양하고 폭 넓은 교양 과목의 개설과 지지에 얼마나 전폭적인 동조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UCLA는 성공적으로 교양과정을 마친 영화학 전공 학생들에게 첫째 해에는 영화와 텔레비전, 디지털 미디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개론을 수강하도록 하고 둘째 해이자 졸업 학년이기도 한 4학년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영화 제작, 텔레비전 제작 (내러티브와 다큐멘터리 중에서 선택),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디지털 미디어, 영화학 혹은 미디어학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졸업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든 졸업생은 최소한 한 과정 이상의 프로페셔널 인턴십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15]

수백 개에 달하는 미국의 필름 스쿨 중에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FSU; Florida State University) 예술학 학사 과정(BFA) 과 예술학 석사 (MFA; Master of Fine Art) 과정이 돋보인다. 매년 25명 안팎의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는 입학한 첫해의 두 학기 동안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모두 끝마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영화 전공의 커리큘럼은 내러티브나 다큐멘터리 형식 중에서 학생이 택일하여 단편 비디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학생들은 16미리 필름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고 4학년 과정에서는 우리의 졸업 작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시니어 메시스 프로젝트 (Senior Thesis Project)를 마쳐야 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제작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14]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영화 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는 교양 있고 창의적인 필름메이커를 키워내서 그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 전공의 세부 전공 과정에는 프로듀싱, 연출, 시나리오, 편집, 촬영, 사운드, 영화사, 미학을 포함하고 있다.[16]

【표 3】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영화전공 교과과정

1학기(가을)	2학기(봄)	3학기(가을)
영어 수학 역사/인류학/미학 영화개론	고급 영어 수학 물리학 역사/인류학/미학	시나리오1 영화제작1 영화편집 영화촬영과 조명 장르와 작가연구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4학기(봄)	5학기(여름)	6학기(가을)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제작2 장르와 작가연구 심화연구-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다큐멘터리 편집 메시스 프로젝트 지원	시나리오2 장르와 작가연구 심화연구-포스트 프로덕션 영화제작3 촬영
7학기(봄)	8학기(여름)	9학기(가을)
심화연구-고급 촬영 시나리오3 영화제작3 고급 편집 고급 사운드	BFA 메시스 프로젝트	잔여 교양과목 메시스 프로젝트 보완 메시스 프로젝트 전공 선택

교과 과정을 소개하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요람에는 전공 교과목에서 최소한 B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나 볼 수 있는 까다로운 우수 등급 이상의 성적을 전공 교과목의 모든 과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재능 있는 일부 우수 학생들에게(Honors Students) 장편 시나리오를 쓰거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여 결과물을 BFA 학위 과정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이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장 점들은 학생들이 현업 종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집중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강의의 대부분이 강사와 학생 비율 1:1식이거나 학생 6명대 강사 1명의 그룹 강의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지난 2004년 전국의 초중고 과정의 영화 강사를 맡게

된 영화전공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각지에서 모여든 영화 전공 졸업생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중 하나는 국내 영화 및 영상 관련 대학의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영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국내의 영화 관련 전공 대학들이 특별히 이론을 전적으로 다루는 영화학이나 실기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평 등의 과정만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아주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공 학사 자격을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경우 영화 전공 학생이 졸업을 하려면 최소한 2편의 단편 영화와 1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하고 다른 이의 작업에 프로듀서나 시네마토그래퍼, 편집, 혹은 미술 감독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졸업 사정에 요구하는 작업에만 참여해도 수편의 필모그래피를 갖고 영화 산업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졸업생은 사회에 나갈 시기쯤이면 당장이라도 국내외의 다양한 영화계에 출품할 수 있는 자신의 작품 목록을 갖고 준비된 신에 영화인이 된다. 또한 학교는 졸업 시기에 즈음하여 학생들과 영화계 전문 인력과 1:1의 멘터를 결연시켜 주어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영화전공 학생들이 곧바로 현장에서 환영받는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이다.

2.3 영상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영화 및 관련 전공 교과과의 커리큘럼에서 두드러진 차이중 하나는 국내 대학이 너무 많은 분야를 너무 일찍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준비로 대부분의 고교 시절을 보낸 뒤, 입학 후에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진입하던가, 아니면 촬영, 편집, 조명, 프로듀싱, 연출 등 자신의 희망 진로라던가 각 세부 전공에 대한 세심한 고찰 없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부 다’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대학의 경우 학부 초기인 1학년 2학년 기간 동안은 교양 과목 공부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부제인 학교들은 1, 2학년 성적이 우수하고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입증시켜야만 3학년이 됐을 때 비로소 영화 전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가 여타의 예술 장르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전제로 볼 때 이는 무척 타당한 일이다. 이를 국내 상황에 감안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① 예술적 소양 중점식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 참조

[표 4] 예술적 소양 중심적 주요 교과과정

	주요 핵심 교양	주요전공, 전공선택
1학년	문학, 글쓰기, 작품 감상과 토론	흑백 사진, 영상기술
2학년	음악, 미학, 사조	영화사1, 연기론
3학년	수사학	영화사2, 영화이론, 제작스텝 워크샵, 촬영, 편집, 연출론
4학년	커뮤니케이션 이론	영화제작, 홍보와 마케팅, 졸업작품 제작, 졸업 논문

국내 대학 영화 전공 지원자들의 특징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연출을 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에서 연출의 역할은 현장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최고결정권자이고 나머지 스태프들과 배우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도 같은 것으로 호도되고 과장된 것인데, 이른바 ‘스타 감독’이 연출하는 일부 상업 영화 제작 현장에서 감독이 연출력이 아닌 독선과 카리스마로 강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자의 대부분이 스스로를 미래의 감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출을 위주로 진행되는 교과에 몰리고 연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과목들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영화감독들이 비 영화과 출신이 훨씬 많음에도 영화학과에 진학하여 영화 인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비단 연출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과 영화 일반의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어문대학이나 비 예술대학 출신 영화 인력보다 준비된 영화 전문 인력이 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영화를 전공하지 않아도 영화 인력이 될 수 있지만 비전공자들과는 구별된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이 영화 대학들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화 전공을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영화 제작의 특정 분야의 독파가 아니라 제작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굳이 ‘감독’만 고집하여 다른 영역의 공부에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분야를 ‘사운드’ 혹은 ‘미술’로 선언했다가 졸업할 때까지 한 분야의 작업만 하다가 학교를 마치는 것은 영화전공을 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연출을 비롯한 영화 제작 스태프 양성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공과목을 제안해본다.

② 스텝, 장인 양성식 - 미국 Academy of Art University 참조

[표 5] 스텝, 장인 양성식 주요 교과과정

주요전공, 전공선택	
1학년	흑백 사진, 색과 조명, 영화 기획론, 프로덕션 디자인
2학년	제작스텝 워크샵, 영화사, 촬영1, 편집1, 사운드1, 연출론, 시나리오, 영상제작실습1, 2
3학년	영화제작1, 영화제작2, 장편시나리오, 홍보와 마케팅, 촬영2, 편집2, 사운드2, 산학프로젝트
4학년	산학프로젝트, 졸업영화제작

대한민국은 연간 장편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 편수가 100편 이 되지 않는다. 영화 제작 현장은 해마다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영화 전공을 졸업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감독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회가 없으니 ‘임시로’ 제작부나 기타 부서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나름대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자신의 연출부 시절을 전문직으로 여기기보다는 ‘입봉 대기’ 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출부와 기타 부서의 조수들이 늘 초보자 위주로 구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임시직’이다 보니 자신의 업무에 관한 노하우나 특성을 개발할 의지도 약할뿐더러 이직률이 높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나 숙련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국 영화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 낭비와 저효율성이 바로 이와 같은 취약한 인적 구성에서 오는 것이다. 감독이 아닌 스태프들의 전문화를 꾀하고 갖은 이직을 막아야 한다. 할리우드와 같은 영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숙련된 조감독과 촬영 오퍼레이터, 프로덕션 매니저들이 항상 포진되어 있다면 감독은 연출에만 집중하고 영화의 질은 높아지면서 제작환경은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경향 가운데 하나는 이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제작 여건 개선과 흥행에 성공한 뉴스가 제작에 큰 관심이 쏠리게 했지만 탄탄한 영화 이론과 작품의 의미와 은유를 분석하는 영화학 관련 과목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영화 및 영화 관련 전공의 제작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영화학 중점의 영화 전공 개설 대학에 주요 과목들을 제안한다.

③ 영화학, 이론 중점식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참조

[표 6] 영화학, 이론 중점식 주요 교과과정

주요 핵심 교양		주요전공, 전공선택
1학년	문학, 글쓰기, 예술 작품 감상과 토론	세계영화사1, 한국 영화사, 영화 산업론
2학년	음악, 미학, 사조	세계영화사2, 영상기술, 영화 감상과 비평
3학년	수사학	영화사, 영화이론1, 영화 비평1, 한국영화 쟁점
4학년	커뮤니케이션	영화이론2, 영화 비평2, 제작, 홍보와 마케팅, 졸업작품 제작, 졸업 논문

3. 결론

국내 영화 및 영상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그동안 영상 인재를 발굴하고 길러 온 대학과 대학원은 변화하는 영화 시장 및 영상 문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앞 다투어 추가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교과목과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관련 교과목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영화 인력의 교육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영화 산업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는데 영화 진흥위원회가 발간한 영상산업 정책 연구서에서 한 미술 감독은 미술 파트 뿐만 아니라 조명, 촬영할 것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온 막내들이 거의 없어 현장에서는 봉급을 쥐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장의 스태프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와 인접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프리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에 참여하여 본인이 미진하다고 여기는 부분의 공부를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5]

비슷한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의 영화 관련학과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보다 소수의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영화 관련학과를 보유한 나라는 경쟁력이나 교육의 효율에서 나올 것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San Francisco Art Institute) 세계적으로 유명한다. 그것은 이 학교가 실험 영화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이 분야의 인재들이 교수로 있기 때문이다.[15] 이 학교에 지원 하는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를 실험 영화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공 교수의 작업 세계와 강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와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호주의 국립 영상 대학교는 사운드 디자인 분야를 지원

하는 학생들이 호주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할리우드가 인접한 UCLA와 USC 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역시 프로듀서와 감독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17] 인근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교수와 교육이 뒷바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촬영장과 세트장을 많이 보유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특수 촬영 분야를 노릴 수 있을 것이고 부산이나 전주같이 국제 영화제가 강점인 도시 주변의 대학에서는 해외 배급이나 홍보 마케팅이 유리할 것이다.

2005년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영화 산업 전문 인력 구조 분석과 정책 지원 방향” 에서 현장 영화인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은 영화 기획과 시나리오 과정, 영화 제작 관리로 세 명 중 한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6] 영화기획이나 시나리오 과정을 가장 절실한 교육 내용으로 꼽는 비중은 직군별로 봤을 때 연출직군에서 가장 높았고 제작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영화 교육에 관한 필요성은 당연히게도 현장 영화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의 영화 및 영화 관련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학과 개설 당시와는 다르게 변한 현재의 한국영화 산업계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과목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현장과 다른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미 낡은 내용이 된 교과과정 등을 정리하고 새롭게 도입된 영화 이론 및 신기술을 교과 과정에 추가함으로써 전공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곧 바로 통용되는 고급 영화 인력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영화 이론, 제작, 연기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영화 및 영화 관련 전공의 세부 전공을 영화사, 장르, 시나리오, 영상 미학, 기획, 마케팅과 홍보, 연출, 프로덕션 디자인, 사운드 디자인, 촬영, 편집, 컴퓨터 그래픽, 조명 디자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깊이 있는 교육과 각 세부전공의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이것은 각 학교가 기존의 세부 전공을 더 잘게 나누어 모든 분야를 다 교육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화 및 영화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각 학교의 특성과 능력에 적절한 세부 전문 분야를 정하여 영화 전공 혹은 영화 관련 전공이라는 포괄적 전공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여 미국이나 다른 영화 선진국들의 영화학교처럼 각 영화학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1] 이아람찬, “영화교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 61-76, 2005.
- [2] “씨네 21 2008년 12월 9일 자 통권 682호 2009 전국 영화영상학과 입시 가이드” 2008.
- [3] 정재형 외, “N세대를 위한 새로운 영화 영상 교육”, 집문당, pp. 51-82, 2004.
- [4] 김홍우,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pp. 24-25, 1995.
- [5] 배경민 외, “노사협약 이후 영화제작현장 변화 및 개선 방향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p. 127, 2008.
- [6] 안주엽 외, “영화산업 전문인력 구조분석과 정책지원 방향”, 영화진흥위원회, pp. 287, 2005.
- [7] 2006-2007 중앙대학교 요람
- [8] 2007 청주대학교 요람
- [9] 2007-2008 동국대학교 요람
- [10] 2007-2008 상명대학교 요람
- [11] 2006-2007 경성대학교 요람
- [12] Ernest Pintoff, "Complete Guide to American Film Schools and Cinema and Television Course", pp. 108-152, April 1, 1994.
- [13] Karin Kelly, "Film School Confidential", pp. 70-110, Sep 1, 1997.
- [14] Peterson's "College Guide for Visual Arts Majors", pp 95-108, 2009.
- [15] Peterson's "Four-Year Colleges", pp 404-405, 2009
- [16]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7-2008 Bulletin
- [1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7-2008 Bulletin

이 찬 복(Chanbok Lee)

[정회원]



- 1995년 5월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화전공 (영화전공 학사)
- 2001년 8월 : 미국 아카데미오브 아트 대학원 영화전공 (예술학 석사)
- 2002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영화영상 전공 교수

<관심분야>

영화 연출, 영화 제작, 시나리오, 영화 교육